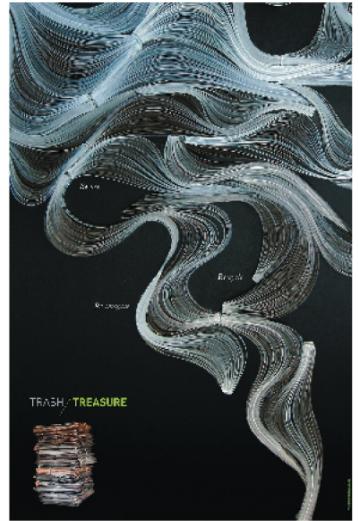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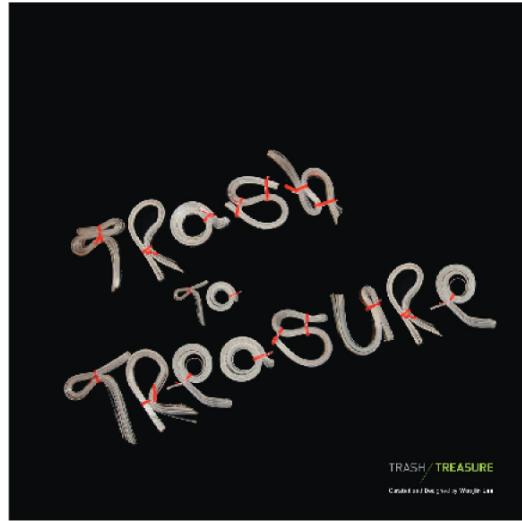


크리에이티비티 인터내셔널 어워드에서 수상한 이우진씨

뉴욕, 플랫 인스티튜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대학원에 재학중인 그래픽 디자이너 이우진이 2010년 제40회 크리에이티비티 인터내셔널 어워드 프린트, 패키지 공모전 학생부문에서 *Trash/Treasure*로 코퍼레이션 아이덴티티 부문 영예의 대상을 포함하여, 메뉴 & 와인리스트, 인테리어 북디자인, 포스터 캠페인 등 총 4개 부문, 대상 한점, 금상 두점, 은상 한점을 수상했다.



코퍼레이션 아이덴티티부문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한 *Trash/Treasure* 프로젝트는 2010년 2월 The Rubelle and Norman Schafler 갤러리에서 열린 “What is Sustainability? Pratt Students Respond” 전시에서 이미 명예작으로 선정되었던 프로젝트이다. *Trash/Treasure* 프로젝트는 re-cycle, re-use, re-imagination을 그 슬로건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 *Trash/Treasure*를 통해 버려지는 일상 용품이 영구적인 두번째 라이프를 갖는 주제를 그 테마로 한 코퍼레이션 아이덴티티 프로젝트로 광고 캠페인과 함께 브로슈어 디자인, 스테이셔너리 디자인, 뉴스레터 디자인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Trash/Treasure 프로젝트는 우리의 일상생활로 부터 생성되어, 결국에 버려지는 소재들이 새롭게 조명된 아트웍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그 전체 프로세스로 한다. 이렇게 생성된 아트웍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동시에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인스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이다. 단순한 리사이클의 범위를 벗어나 버려지는 오브제들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트웍으로 승화시키며, 아티스트들

과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포스터 캠페인에 쓰여진 이미지 작업 프로세스는 2000년도 부터 수집해왔던 이우진이 소장한 오래된 잡지들과 신문들을 활용한 작품으로 랜덤하게 가로방향으로 컷팅된 각각의 조각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형태를 구성한 작품으로 개인의 프라이빗한 아트웍을 커머셜한 매체를 통해 설득력있게 풀어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별히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Trash/Treasure* 브로슈어에는 같은 테마를 가진 플랫 인스티튜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대학원에 함께 재학중인 디자이너들이 작가로 초대되어 참여하였고, 40년 동안 뉴욕 디자인계의 선두 주자인 Taylor & Ives 의 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Professor Alisa Zamir 가 함께 프로젝트의 인스트럭터로서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 ◀ 이우진씨 ■ 대상작 *Trash / Treasure* Brochure Cover
- ▶ 대상작 *Trash / Treasure* Poster



서울 국민대학교,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공모전을 통해 쌈지(주)에 입사하여 악세사리 디자이너와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98년부터 직접 운영한 디자인 사무실, 희희락락에서 아트디렉터로서 여러 광고 작업, 갤러리와 기업체의 B.I., C.I. 작업, 웹사이트 디자인을 비롯해 서울 시내 교통카드인 T-money 디자인 작업을 했다.

이우진은 현재 Jeff Bellantoni가 학과장으로 있는 플랫인스티튜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Aging과 Imperfection의 Social Cause를 디자인 솔루션으로 하는 OMHU (Danish : 위대한 보살핌)에서 Creative Director Rie NØrregaard와 함께 브랜드 아이덴티티 어플리케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제 40회 크리에이티브 인터내셔널 어워드는 세계 31개국, 미국 내 27개 주, 그리고 4개 캐나다 지역으로 부터 90여개 카테고리가 1,000여점이 넘게 접수가 되었다. 접수된 작품들은 광고와 디자인 프로

페셔널로 구성된 패널들로부터 리뷰되었으며, graphic design agency IE Design + Communications의 설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Marcie Carson, Quórum, the Mexican Designers Council 의 설립멤버인 René Galindo, HOW magazine의 아트디렉터인 Bridgid McCarren 등이 이번 어워드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1970년에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인터내셔널 어워드는 세계적으로 역사가 긴 독립 광고와 그래픽 디자인 공모전의 하나이며, 매년 수상된 탑 디자인, 광고, 커머셜, 그리고 웹사이트등이 포함된 400여 페이지의 크리에이티비티 애뉴얼북이 출판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발행되고 있다.

위 ▶▶ 금상작 Meat Packing Book
아래 ◀■ 금상작 Menus Wine Lists ■ 은상작 Poster Campaign
▶ 은상작 NYCITY GREEN 2009 : Clean Land

